

[2025-18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5. 3.27(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LA한국문화원,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예술원 LA특별전> 개최

- 대한민국예술원과 공동으로 4.10부터 5.15까지 문화원 갤러리서 개최
- 故김환기, 천경자 화백 작품 포함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등 예술원 회원 작품 전시

			
김환기 [1913-1974]	천경자 [1924-2015]	서세옥 [1929-2020]	엄태정 [b.1938]

- ▶ 전시명: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 ▶ 전시기간: 2025.4.10(목)-5.15(목)
- ▶ 전시개막식: 2025.4.10(목) 18:30-21:00
- ▶ 장소: LA한국문화원 2층 전시실 / 5505 Wilshire Blvd. L.A., CA
- ▶ 주최: LA한국문화원, 대한민국예술원
- ▶ 불임: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전시문의: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 이하 문화원)은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신수정, 이하 예술원)과 공동으로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문화원 갤러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대한민국예술원 LA특별전> (Special Exhibition by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Republic of Korea)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한국 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온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1988년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등 각 예술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한국 대표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회원 작품전(미술전)의 해외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원류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번 LA 전시는 한국미술의 거장들이 남긴 유산과 현재 활동 중인 예술원 회원작가분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이종상·홍석창·이철주(한국화), 윤명로·유희영·박광진·김숙진·정상화·김형대(서양화), 전뢰진·최종태·엄태정·최의순(조각), 이신자(섬유), 강찬균(금속), 조정현(도예), 윤승중(건축) 등 총 17명의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미 각 장르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은 지금도 활발히 창작활동을 펼치며 한국 미술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천경자·서세옥(한국화), 김환기(서양화) 등 작고한 회원의 작품을 함께 전시해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대표적인 몇 작품을 소개하자면 김환기(1913-1974)의 <무제>(1968년작)는 뉴욕 시기 특유의 점화(點畵) 기법을 통해 인간과 세계,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점과 선의 조형적 리듬은 한국적 정서와 서구적 모더니즘이 조화를 이루는 그의 예술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경자(1924-2015)의 <여인상>(1985년작)은 그녀의 대표적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여인 초상화 중 하나로, 나비와 열대식물이 배치된 화면 속에서 신비롭고 원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채색 한국화를 개척한 천경자의 독창적 감성과 강렬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서세옥(1929-2020)의 <사람들>(2010년작)은 간결한 필선으로 서로 연결된 인간 군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그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며, 동양적 사유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탐구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관계성과 조화를 강조하며, 생명력 넘치는 필법이 감상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엄태정(1938-)의 <세계는 세계화한다>(2025년작) 는 조각 작품을 ‘하나의 세계’로 해석하는 독창적인 조형 철학을 담고 있다. 한국 추상조각 1세대 작가로 평가받는 그는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조각이 단순한 사물의 집합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을 탐구한다.

신수정 예술원 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미술가들의 작품이 LA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미술 각 분야에서 한국미술의 정통성을 이어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추구해온 작가들의 열정이 현지 미술 애호가와 교민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시 취지를 설명했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한국 예술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미 남가주 사회에 널리 공유하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적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예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함께 반추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4.10(목) 오후 6시30분에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전시 개막식에는 신수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최의순 미술분과 회장, 엄태정 미술분과 회원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며, 전시 해설도 진행된다.

전시는 4.10(목)부터 5.15(목)까지 일반에 공개하며,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